

[목회자 모임]
십자가로 가는 길 - (8) 목표와 길

2020. 6. 5. 이현래 목사

오늘은 유명한 말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17장인데 들어가기 전에 12장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그게 아마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역사에서 마지막이고 절정인 것 같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으니까 더 이상 다른 이적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더욱 분명하게 표현될수록 예수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유대종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될수록 이질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없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군중들은 못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오만 사람이 다 찾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다.

또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확신이 깊어져 갔다. 말굽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저런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에 넉넉한 메시아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졌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신이 낫겠는가? 메시아가 틀림없이 맞다면 자기들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까 이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지게 된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면 입장이 다 애매모호하게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되면 반응도 다 애매모호해져 버린다.

내가 말씀을 해오는 동안에 쪽 같은 말을 해 왔다. 그런데 아주 다르다. 정의도 처음 한 말 같으나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했는데 선명도가 다른 것이다. 지식은 언제나 같다. 그런데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자꾸자꾸 선명해지게 된다. 어린 아이들은 생명력은 참 왕성하지만 신경이 성숙하지 못해서 손가락 발가락 행동하기가 어둔하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신경이 점점 확고하게 되

어서 섬세해지게 된다. 손가락도 섬세하고, 발가락도 섬세하고, 모든 게 섬세해지게 된다. 생명도 꼭 그렇다.

내가 옛날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운명을 이야기 했다. 그때 나에게 어떤 분이 운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물었다. 자기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말이었다. ‘그의 운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역시 또 범위가 애매해진다.

이번에 십자가를 단지 그냥 포괄적으로 십자가,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많이 좁아진 것이다. 그냥 십자가라고 하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희생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렇게 된다. 여기서 나는 굉장히 고민을 했다. 나를 위해서 왜 죽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할 만한 그런 죄는 안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아주 곤란한 문제였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내 속에 맴돌고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많이 쉬워졌다. 우리와 같은 운명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게 뭔가 온전치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려오지 못하는 곳이구나. 누구나 사람은 못 내려온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이 걸린다. 말이라는 게 그렇다. 그것 때문에 진통을 겪게 된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는가? 듣기 싫은 말이고 남에게 이야기 하면 알아듣지 못할 것인데 왜 저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냐고 한다.

더 분명해질수록 길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갈라진다. 백두산으로 가는지 한라산으로 가는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산꼭대기에 가면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교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의 소위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속에는 다 다른 생각이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인데 뭘 어떻게 위하는가는 다 다르다. 그때 누가 그 풍경을 만화로 그려놓았다. 다섯 명인지 여섯 명인지 모르겠다. 천도교까지 다 모였는데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 모두 다 생각이 다르니까 위에 생

각이 다른 만화를 그려놓았다. 같이 모였지만 생각은 다르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다 나라를 위한다. 나라를 망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생각은 다 다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달라져 버린다.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편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보다 더 하다. 조선시대는 당파 싸움 하다가 망했다. 나라가 망하는지 아닌지는 뒷전이었고, 누구편이 이기는가가 중요했다. 일본이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안방에 들어왔을 때까지 싸웠다. 지금 우리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똑 같은 사건인데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조금도 근접할 만한 것이 없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거리다.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목표가 달라지면 길이 다르게 되고, 길이 다르게 되면 생각이 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고치겠는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무엇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 잘했다거나 잘 못했다고도 할 수가 없다. 단지 편이 다른 것뿐이고, 입장이 다른 것뿐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분이 가시는 길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반응도 아주 다르게 나오게 되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안 하던 일을 하십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겸손하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는 길이 다르다. 꼭 세족례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먹어라.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이러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이상한 짓이다. 전에 안 하던 짓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목표가 다르면 길이 달라지니까 말을 하면 더 못 알아듣게 된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목표가 다르다.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딱 말만 떼놓고 보면 어느 말은 옳고 어느 말은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사탄의 말이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니까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을 들으면서 목표를 찾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제자들은 참 예민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스도의 목표와 아담의 목표는 다르다. 아담은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죄를 사해준다. 말은 맞는 것 같고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다 다르다. 네 죄를 사해주마 하면 죄가 사람마다 다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

부흥회 같은 곳에 가면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참 딱했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통회자복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내가 감정이 너무 무디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렇게 울어야 되는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는가?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통회자복 하는데 나는 왜 죄가 생각이 안 나는가? 참 곤란했다.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른 문제다. 목표가 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목표가 다르면 갈수록 달라진다. 창세기 3장에서는 간단하다. 얼른 들으면 별 게 아닌 것 같다. 가시덤불이 될 것이다.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난다. 땅이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난다. 인생을 살다보면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는 것이다. 안 그런가? 너는 살다가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사람이 죽으면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별로 심각한 문제 같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대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생긴다. 선악과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그 속에는 없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뭐가 나쁜가?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한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길이 같아야 고칠 수도 있는데 길이 다르니까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완전히 벽창호다. 우리를 보고 골통이라고 하니까 말도 못한다. 말했다가는 왕따 당한다. 기독교인들도 그렇다. 교회는 안 그런 줄로 아는가? 교회를 가 보면 큰 교회는 내용이 다 다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제자들은 다 다르다. 길이 다 달라졌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갈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어떤 분은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째는 불순종, 둘째는 교만, 셋째는 욕심이라고 한다. 불순종.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가상할 정도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교만. 어디를 가도 교만하지 말라고 한다. 교만하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다 하는 말 같다. 이것이 다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닌가? 욕심을 버려라. 이것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양 하는데 가면 다 똑같다.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된다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욕심 없는 사람도 있다. 나도 완벽하진 않아도 어려서부터 환경이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그래서인지 아버님께 내가 불순종해본 적이 없다. 억지로 해본 일도 없고, 억지로 시킨 일도 없었으니까 불순종 할 기회가 없었다. 좀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하시라는 대로 해야지 하니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원죄가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교만. 나는 교만해 본 일이 없다. 뭐가 특별히 있어야 교만하게 된다. 욕심. 욕심은 아버지 때부터 없다. 나에게 욕심이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는 원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동네에서 칭찬받고 자랐고, 집에서도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다시 나아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알아들겠는가?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아 된다고 하는

데,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는 어디로 가시는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것이 마지막 문제가 되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께는 너무 은혜를 받았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곤고할 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모르겠다. 『주의 손에 이끌려』에 썼지만 쓴 것보다 더 생생하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내 근본으로 간다. 원래의 위임으로 간다. 사람에게 맡긴 위임이 있다. 그것은 결국 위치다. 장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위치다.

마찬가지로 나는 참 사람의 자리로 간다. 내가 사람의 자리로 간다는 이 말이다.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사람은 죽으면 온 대로 가는 것이고, 다 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공자님이 안 그러겠는가? 석가모니가 안 그러겠는가? 그렇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된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똑 같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니고데모의 문제는 그냥 있다. 그것이 해결되면 세상이 바뀌진다.

어제 밤에도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데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요3:8) 라고 말씀하셨다. 더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딱 넘어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이 말씀으로 넘어갔다. 그 앞에 14,15절이 있는데 그것은 안 보인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가려져 있다. 참 묘하다. 나도 옛날에는 그것을 몰랐다. 뒤로 그것이 발견되었다. 참 묘하다.

부흥회를 가면 강사들은 대부분 야곱이 나무뿌리를 잡고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지가랭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다 그런 줄 안다. 야곱의 기도, 다 그렇게 하려고 노

력한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니까 되는가? 안 된다. 그때는 나도 몰랐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되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안 됐다. 달은 휘영청 밝은데 산에 올라가서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부스럭 소리만 나도 오싹해져 버렸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데도 앉아 있으면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 주르륵 하는 소리도 난다.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럴 때마다 바짝 긴장하게 된다. 그렇게 점점 긴장하는데 뭐가 오는가? 그것을 좀 풀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풀어진다. 나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다.

다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성령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단번에 성령으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고생을 시키겠는가? 아무리 선악과를 먹었더라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해주시면 다 안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겠는가? 꼭 그렇게 애걸복걸해야 되겠는가?

예수,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였지만 그는 생명의 주였다. 베드로 사역을 보면 살아났다는 것을 주로 전파하였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면 같은 일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말이 나온다. 베드로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펄펄 끓는 말을 했는데,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 어렵다. 함께 죽었다. 어떻게 함께 죽었는가? 어렵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언제 죽었어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을 게 아닌가? 죽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는가? 요한시대에 와서는 다시 나아 한다는 말이 나왔다. 다시 내려니까 이것도 더 어렵다.

지금 우리가 봐온 요한복음에 보니까 떠날 때가 되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러하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 보혜사는 곁에 있는 자, 곁에서 나를 위로하는 자, 곁에서 나를 인도하는 자다. 보혜사는 조*기 목사가 잘 쓰는 말이다.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해 본 사람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참 어렵다. 함께 있다. 곁에 있다. 항상 모시고 있다. 이것은 차라리 오순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실감이 좀 날 것이다.

전에 있던 교회에 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 줄로 알았다. 성령이 떠난 줄 알았다고 했다. 순복음 교회를 다니다가 왔는데 방언을 그 동안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언이 다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안 떠났다고 좋아한다. 그때 나는 그게 부러웠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보혜사, 항상 옆에 계신 분,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혜사, 보혜사라고 한다.

한 발짝 더 나가니까 포도나무이야기가 나왔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고 하셨다. 점점 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그것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다. 불안해 하니까 위로하는 말이라고 넘어가면 쉽지만 성경에 그런 것을 써놓았겠는가? 말로만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에 자기가 있을 곳이 없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9:58)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세상에는 내가 거할 데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거할 데가 없다.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데가 많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교황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있을 곳이 많겠는가. 대단한 발전이 아니겠는가? 있을 곳이 없던 분이 이제는 교황까지 되었으니까 못 갈 곳이 없다. 냉전시대에도 소련을 갈 수 있던 사람은 교황뿐이었다. 어디에도 못 갈 데는 없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이야기를 했다. 옛날에는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는 왜 메시아라고 믿는가라고 하면 보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문 선생이 아닌가? 한다. 그는 냉전 시대에도 소련까지 갔었다. 그런 것을 자랑한다.

거할 곳이 없던 분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분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거하실 곳은 없다. 그리고 점점 더 문명이 발전할수록 거할 곳은 더 없어진다.

길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길이니까 그 길에서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없고, 거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는 영문 밖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13:12,13)라고 말씀했다. 예수 있는 곳에 가야 예수를 찾지 예수 없는 곳에 가서 예수를 찾는다고 되겠는가? “문을 두드리라.”(마7:7)고 아무 문이나 두드리면 되겠는가? 두드릴 문을 두드려야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7:7) 한다고 아무것이나 구한다고 주시겠는가?

길이 다르면 교통이 안 된다. 창세기 3장부터 가는 길을 보면 딱 정해져 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가 딱 정해져 있다. 네피림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 간다. 그것이 세상의 길이다. 세상은 그 길에서 성공이나 실패냐를 보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이다. 거기서 다른 길은 기고 날아 봐도 별 것이 없다. 네피림 시대는 네피림 쪽으로 가야 되고, 바벨탑 시대에는 바벨탑 시대로 가야 되지, 거기서 다른 길로 간다고 역행하면 고생뿐이다. 그 속에서 고생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거기서 사람을 불러냈다. 그 속에서 그것을 고치고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왜 예배할 데가 없는가?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다. 바로가 모세에게 왜 나가려고 하는가? 모세가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여기서 드릴 데가 없는가? 여기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말은 맞는 말이다. 예배드리려면 거기서 하면 되고, 단을 쌓으려면 애굽에서 쌓으면 된다. 못할 것이 뭐 있느냐? 그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다 예배당도 지어주고, 성당도 지어주고, 다 하겠다는 말이다.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 우리는 꼭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것과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을 연계시켜서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으로 연결시켰다. 어려서 애굽에 내려갔던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불러냈다고 한다. 길이 다르다. 목표가 다르니까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느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고 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자기대로 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같은 목표 안에서 다른 길이 나오겠는가? 그 길이 도로 그 길이다. 똑같이 애국을 한다고 하는데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른 것 같은데도 똑같은 것이다. 목표가 똑같기 때문이다.

17장에 가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 이것이 17장 기도의 요점이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 17:1)라고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하고 있다.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한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것은 크게 찾을 만한 것이 없다. 전부가 기적이고 이적이다. 이적을 빼면 예수에게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서를 보면 이적을 싹 빼고 보면 뭐가 있는가? 나머지 있는 것은 공자님에게 있는 것이나 매 한가지고 그보다 더 적다. 석가모니에게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

누구는 요즘에 마가복음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어록만 뽑아서 그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어록도 사실은 진짜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문기자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다.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다면 그 제자가 말씀을 듣고 어록을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꼭 그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도 요한이 언제 다 듣고 외웠겠는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자기 말로 했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것도 있다. 우리가 해보면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듣는다. 누가 들었냐는 이것이지 꼭 그렇게 말했냐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반응을 보면 다 다르

다. 그러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소화해서 내놓은 것이다. 성경도 그런 것이 아주 많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7장에 가면 언제 요한이 이것을 다 외웠겠는가? 자기가 예수를 아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거리낌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누가 내 말을 내 마음과 똑같이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말보다 더 깊게 말해줄 사람도 있다. 워치만니에 대해서 봤는데 그렇다. 영문을 번역한 것을 처음에 접했는데, 지금은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출판해서 팔고 있다.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영문판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진짜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번역해놓은 사람이 어떤 자매였다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번역을 해놓았다. 워치만니보다 더 깊게 말해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할 때 메모해서 한 것이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자매를 만나보고 싶었다. 전화 연결을 했는데 벌써 나이가 많고 90이 넘어서 못 만나겠다고 해서 못 만났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분의 책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브라함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다. 성경에 있는 것을 100번을 봐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그 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렸다.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 이 속에 이런 말이 다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받은 충격이었다.

나는 꽤나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한 분에게 성경을 배웠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다. 뭐든 생각을 깊이 한다. 일본 드라마를 보면 지루해서 못 본다. 맨날 생각하고 있다. 아주 재미없다. 연애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정신없이 불나게 쫓아다녀야

재미가 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이 사색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일본 드라마는 아마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 치는 것이 더러 있는데 우리는 좀 급하고 스릴 있다.

조*기 목사가 성공했던 이유가 그것이다. 처음에 최*실 장로와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서대문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천막 집회를 했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관으로 들어왔다. 미국 사람이 설교를 한 것보다 조*기 목사의 통역이 더 은혜롭다고 했다. 결국은 그 선교사가 자기가 개척한 그 자리를 물려주고 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조*기 목사가 더 은혜롭다고 하는데 어찌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물려주고 갔다. 그래서 저렇게 크게 된 것이다. 자기 혼자 할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통역을 하면서 신나게 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17:1)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이 거기서 없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으니까 영화롭게 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와서 보면 정말 아들을 영화롭게 했구나. 그렇게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온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둔 것이다. 거기서 만일에 중간에 뛰어내려왔으면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어떻게 포함이 되겠는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미 ‘아버지’하고는 안 된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진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이렇게 나온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정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까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참 아들이라고 했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너무 섭섭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나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징조라도 보여주고 했으면 할 텐데, 성경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쪼개졌다고 했다. 그것

이 사람들에게 다 보였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가겠는가? 세상 말로 한다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만유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 그것이 참으로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유의 주가 되게 했다. 누구도 그 예수 앞에 가서 나는 당신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 안에 있다. 내가 포함되려고 해서 포함되는가? 포함되려고 사정하면 포함이 되겠는가? 저절로 그냥 포함돼 버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냥 포함이 되어 버린다.

사람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저절로 포함되어 버린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에게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 안 되기도 한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 될 수 없다. 별 신학이 나와도 안 된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나에게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 안 되기도 한다. 그런데 예수의 그 자리는 사람뿐 아니라 만유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했을 때 그 모양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말도 된다.

포함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예수를 모시고 싶어 얼마나 노력했는가? 단 하루라도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없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는 있지만 기도 하지 않을 때는 없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저녁에 와서 보니까 아차 내가 돌아다니다 다 잊어먹고 허당이었다.

어떻게 그분을 내 맘속에 모시고 살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그 안에 있다.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모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만유가 포함된 자리로 가버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그 안에 있다. 내가 죽고 싶어 죽는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야지,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참 많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죽어지겠는가?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은 거기서 다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도 포함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도 거기서 다 끝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거기서 살아남을 것이 있겠는가? 우리 지식이 거기서 살아남겠는가? 우리 행위가 거기서 살아남겠는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없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시험 제목을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논하라고 썼다. 그래서 그때 나대로는 교리대로 잘 썼더니 칭찬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다. 교리대로는 맞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참 좋다.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그런데 반론이 들어온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믿기만 하면 죄를 저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돌아온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당연히 그 말이 나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기 가면 심판이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행함이 나와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냐는 것이다.

그 믿음 이전에 뭐가 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알고 보면 구속이 먼저인데, 구속을 빼 버리니까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구속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믿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구속 밖에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것은 신념에 불과하다. 길이 달라버리면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다. 길이 다르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뭘 잘하면 같이 가고, 뭘 못하면 다른 길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구속 안에서’**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이다. 그분 안에서 'In christ'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다. 완전히 말이 다르다. 자기 아들에게 한 말과 남에게 한 말하고 같겠는가? 말이 아무리 똑같아도 다르다.

내가 참 어려운 질문을 받았었다. 우리 교회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이 들어오면 참 어렵다. 목사님 아들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을 많이 들었다. 집에 있을 시간도 없었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 목사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하나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 하나님도 이제 할 말이 없다..

길이 다르면 모든 언어가 다 달라져버린다. 같은 말인데 뜻은 다 달라진다. 문제는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정하냐? 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거기에 못을 박아야 한다. 창세기 1장에 못을 박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장어를 손질할 때 어떻게 손질하는지 아는가? 미끌미끌해서 사람이 손으로 잡고 배를 가를 수가 없다. 살아있는 장어를 처리하려면 도마 위에 놓고 대가리에 못을 박아야 놓고 등을 찢러 갈라야 갈라진다. 장어구이를 그렇게 한다. 다른 고기는 손으로 잡고 해도 되는데, 장어는 미끄러워서 손으로 잡고 안 된다.

우리 인간도 머리가 거기 박혀 있어야 한다. 첫째로 박혀 있을 데가 어디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박혀 있어야 한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여기에 꼼짝 말고 박혀야 그 다음에 말이 되지 그것이 안 된 사람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한심한 일이다. 하나님이 피곤할 일이다.

어떤 신학자는 맨날 찾아보자고 한다. 언제까지 찾아보다가 죽을 것인가? 뭘 찾아보겠는가? 찾아본다고 나오겠는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따로 있겠는가? 찾아봐야 자기 생각이다. 틀렸든지 맞았든지 성경에 못을 박아야 된다. 창세기 1장1절에 못을 박고 시작해야 되지 그것에 박지 않고 시작

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목표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목표를 결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사역자가 첫째로 거기에 못이 박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못이 안 박힌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고, 자기 멋대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교육이 그런 교육이다. 과학이라는 교육이 그런 것이다. 없는 것을 찾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인기가 있다. 인기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답이 없다. 목표가 없는데 답이 어디 있겠는가? 틀렸든지 맞았든지 목표는 하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틀리든지 맞든지 결정이 된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평생 애 먹이는 것이다. 재미있으면 뭐하는가? 그런 사람 강의를 들으면 재미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재미있으면 뭐하는가? 밥을 먹었는데,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배만 부르고 말지 힘이 나겠는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 목표를 먼저 설정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줄 수 없다.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목표는 있어야 한다.

사탄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목표를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면 다 틀어진다.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만 틀어놓으면 저절로 가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날마다 따라다니며 사기 치는가? 없다. 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를 돌려놓아야 한다. 목표를 돌려놓아야 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17:1)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화로워져야 하나님도 영화로워진다. 의복이 날개라고 하나님도 사람 잘 만나야 되지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하나님도 골치 아프다. 아주 간단하고 쉽다. 목표가 있으면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내가 그

를 따라가게 되고, 내가 그를 따라가야 결론이 나오지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결론이 나오겠는가.

성경대로 결론을 얻어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해진다. 성경대로 해도 안 된다. 그래도 애매하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대기하고 계신분이 있다. 밤낮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다. 우리가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것이 복이다.

감사합니다.